

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2.27.(금)/ 총 2매 (본문 1, 붙임 1)	
자료 제공	•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극지전략연구실 - 김지영 전문연구원(051-797-4765, jiyeong111@kmi.re.kr)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2회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 성료

- 부산항 개항 150주년 맞아 친환경 북극항로 거점 도약 논의 -
- 업무협약 기반 산·학·연 협력 본격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부산항만공사,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회 친환경 북극항로 포럼'을 2월 27일(금)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부산항이 '친환경·저탄소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포럼은 앞서 체결된 친환경 북극항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마련된 후속 행사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부산항만공사,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간 협력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선사 및 운영사, 학계, 부산항발전협의회, 언론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북극항로와 친환경 해운 전환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친환경 북극항로 허브항으로서 부산항의 역할'을 중심으로 △극지연구소 진경 부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 본부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북극항로 이용 가능 기간 전망, 신뢰 기반 운영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제시됐으며, 글로벌 환적 허브 기능 강화와 친환경 병커링 체계 구축 등 부산항의 전략적 기능 고도화 방안이 제안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서의 부산항의 역할과 준비 방향 ▲컨테이너 운송 관점에서의 운항 가능성 ▲운임 경쟁력 및 운영 안정성 확보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산업계와 항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산·학·연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부산항이 친환경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기 보도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취재지원 필요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지영 전문연구원(051-797-4765, jiyeong111@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포럼 현장 사진

